

英 語 弱 母 音 考

黃 彥 澤

目 次

I 序 言	3.1. 弱母音 相互間의 關係
II 英語弱母音의 種類	3.2. 母音 앞의 弱母音
2.1. 弱母音의 定義	3.3. 弱母音[i]
2.2. 英語의 弱母音	3.4. 弱母音[u]
2.3. 關聯事項	IV 結 語
III 弱母音과 그 音聲環境	

I 序 言

本稿는 첫째, 英語의 弱母音은 무엇무엇인가, 둘째, 각 弱母音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가를 考察한 것이다.

英語弱母音의 종류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서 대충 다음의 두 가지 見解가 있다. 즉, 하나는 Ladefoged (1975: 72)의 「英語의 모든 母音이 弱音節에 나타날 수 있다」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英語弱母音의 範圍를 아주 넓게 잡는 見解요, 또 하나는 Prator(1957: 16-17)의 「弱母音은 보통 [ə] 또는 [ɪ]로 발음된다. 英語音聲學에서의 特徵 중에서 이보다 더 簡潔하고 이보다 더 基本的인 것은 없다」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英語弱母音의 範圍를 좁게 잡아, 일부 母音만이 弱母音이 될 수 있다는 見解다. 또, Prator처럼 弱母音의 範圍를 좁게 잡는다 하더라도, 그 數는 몇 개나에 대해서는 역시 論者에 따라 그 答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 以上の 어느 見解에 立脚하더라도, 英語의 發音現象은 論할 수 있다. 그러나, 本稿처럼 英語의 弱母音만을 중심으로 論하려 하면, 부득이 英語弱母音의 종류부터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種類 여하에 따라 그 內容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意味에서, 우선 本稿 第2章에서는 이 種類문제를 다루었다.

다음 第3章에서는 英語弱母音의 性格, 특히 어떤 경우에 어떤 弱母音이 나타나는가를 다루었다. 어느 모로든, 이 考察이 本稿의 主된 目的이라고 할 수 있다.

本稿의 考察對象이 된 발음은 소위 一般美國英語 (General American)라는 發音型이다. 한 단어에 대해서 몇 가지 발음이 있을 경우에는, 敎養있는 대다수 美國人이 平常時에 無意

識的으로 사용하는 對話體發音에 더 큰 比重을 두었다. 여기에서 「無意識的」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本稿가 「弱」母音を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弱母音은 이 音을 발음할 때의 意識 여하에 따라 그 音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럴 때에는, 그 「無意識」쪽의 발음을 爲主로 했다는 것이다. 그쪽 발음이 言語의 本質에 더 附屬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II 英語弱母音의 種類

2.1. 弱母音의 定義

2.1.1. 定義. 일반적으로는, 弱한 強勢를 받는 母音を 弱母音이라고 하는데, 이 定義(辭書的 意味)를 가지고서는 英語弱母音의 種類를 客觀的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 「弱한」에도 「強勢」에도 主觀性이 內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와 같은 主觀性을 조금이라도 排除하기 위해서, 다음의 (1)처럼 弱母音(및 強母音)의 定義를 내려 보았다. (定義 중의 第1強音節이란 第1強勢를 받는 音節을 뜻한다.)

- (1) (a) 第1強音節에 나타날 수 있는 音價를 가진 母音を 強母音이라 하고,
 (b) 第1強音節에는 나타날 수 없는 音價를 가진 母音を 弱母音이라 한다.

이를 테면, climax의 -max속에 들어 있는 母音[æ]는, 그 強度야 어떻든, hat[hæt], mad[mæd]의 [æ]와 同一한 音價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強母音이다. (本稿는, 단독으로 발음되는 單音節語의 母音은 반드시 第1強勢를 받는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또, attack의 at- 속에 들어 있는 母音[ə]는 어떤 第1強音節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弱母音이다.

2.1.2. 考察. 英語의 경우, 強勢의 변동에는 母音音價의 변화도 따른다. telegraph[tél-əgræf]와 telegraphy[télégrafi] 사이에는 두 가지 現象이 나타나 있다. 하나는 強勢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強勢의 有無에 따라 母音의 音價도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telegraph→telegraphy의 現象을 모두 설명하기 위해서는, 強勢의 변동 뿐만 아니라, 母音音價의 변화에도 言及해야 한다. 또, and의 強形[ænd]와 弱形[ənd]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지 強勢의 有無만으로는 이 現象에 대한 설명이 끝날 수 없다. 母音音價의 변화가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télégraph와 télégraphic의 경우처럼, 第1強勢와 第2強勢끼리 서로 그 위치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現象이 일어나는 것이 英語의 通則인 것이다. 強勢의 有無와 音價와의 이 밀접한 관계는 母音의 音價를 통해서 強勢의 有無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暗示해 준다. (1)은 이 暗示를 具象化시킨 것이

다.

美國의 學者 중에도 音價를 強勢에 결부시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 Wise(1957: 15)는 「強音節의 母音만이 소위 正常音價(normal value)로 발음되고, 弱音節의 母音은 [ə] 또는 [ɪ]로 弱化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의 正常音價는 (1a)의 「第1強音節에 나타날 수 있는 音價」에 해당한다. 또, Prator(1957: 16)는 「強勢는 단어에 特性和 리듬을 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母音의 音價(이를 테면, a가 [e:]로 발음되느냐 [ə]로 발음되느냐)도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音價가 強勢를 결정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 Kenyon이 있다. Kenyon(1950: 91)은 misunderstanding의 -un-은 mis-(第2強勢)보다는 약하되, -der-(弱勢)보다는 강한 強勢, 즉 輕強勢(light accent)를 받는다고 말한 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輕強勢의 強度가 不安定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音節의 母音의 音價를 통해서만, 겨우 輕強勢의 존재를 認知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여기의 音價는 本稿의 音價와 같다. 이상의 Wise, Prator, Kenyon 세 사람의 見解는, 枝葉的인 면에서는 상호간에 다소의 차이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 根幹에 있어서는, 母音의 強·弱은 音價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데에 集約될 수 있다.

위에서는 英語의 경우만을 例로 들었는데, 英語 외의 言語에서, 弱母音의 定義(1b)가 「意義있게」適用되는 例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에스파냐語의 경우에는, 語中 또는 語尾에 나타나는 a가 [ɪ]로 弱化된다(Wise, 1957: 459)는 것을 제외하고는, 強勢의 有無에 관계 없이 母音은 모두 正常音價로 발음된다. 따라서, (1b)에 의한 弱母音[ɪ]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서는 에스파냐語의 強勢를 전부 論하기는 어렵다. 즉, 별 意義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1b)가 意義있게 適用되는 言語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語에서는 /i, a, u/만이 弱音節에 나타난다(Schane, 1973: 10). 이것을 Wise(1957: 486-91)에 의해서 音聲表記로 고치면 [i, ə, u]각 되는데, 결국, 이 세 母音은 (1b)에 의한 弱母音이 된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살펴 보고 싶은 것은, 에스파냐語는 固定強勢(fixed stress)를 가진 言語, 즉 特定 音節에만 強勢가 놓이는 言語요, 러시아語(및 英語)는 自由強勢(free stress)를 가진 言語, 즉 어느 音節에도 強勢가 놓일 수 있는 言語라는 점이다. 똑 같은 強弱言語(stress language)라 하더라도, 固定強勢를 가진 言語의 母音은, 強勢의 有無에 불구하고, 거의 正常音價로 발음된다. 音價와 強勢의 두 가지 概念 중, 音價에 대한 意識이 強勢에 대한 意識보다 자연히 더 강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自由強勢를 가진 言語의 母音은 強勢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音價에 대한 意識보다 強勢에 대한 意識이 더 강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強音節의 母音을 강하게 意識하면, 反射的으로 弱音節의 母音을 더욱

더 약하게 발음하려는 意識이 자연히 작용하게 된다. 弱音節에 나타나는 여러 母音이 [ə] 또는 [ɪ]로 약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英語나 러시아語에서 顯著하다는 것도, 이들 言語가 自由強弱를 가진 言語라는 데에 그 한 가지 原因이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英語 母音의 強·弱은 音價를 基準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2. 英語의 弱母音

2.2.1. 決定 基準. 여기에서는,

(2) 第1強音節이 아닌 音節에 나타난 母音으로서,

- (a) 어느 強母音과도 그 音價가 같다고 볼 수 없는 母音
- (b) 또는, 그 音價가 不安定한 母音

을 弱母音으로 定한다. (2a)는 (1a, b)와 같은 內容으로서, 단지 그 表現을 조금 달리한 것 뿐이다. (2b)는 (2a)의 適用이 어려울 때에 適用되는 것으로서,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強母音은 분명한 音이지만, 弱母音은 弱한 音이기 때문에, 強母音처럼 분명하게는 발음되지 않는다. 즉, 弱母音은 분명하지 못한 音價를 가진다. 따라서, 이 音인지 저 音인지 분간하기 어렵거나, 또는 이 音도 저 音도 아닌 그 中間音으로 발음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 音價가 不安定하다는 것이다. 만일 第1強音節이 아닌 音節에서 이러한 (音價가 不安定한) 現象이 일어나면, 그 現象의 中心에는 弱母音이 존재한다고 보아도 된다. 이런 意味에서 (2b)가 생긴 것이다. 以下, 弱母音 與否의 決定은 이 (2)에 의한다.

2.2.2. 弱母音 [ə], [ɪ], [ʌ]. 모든 辭典, 모든 音聲學書가 공통적으로 弱音節로 表示하고 있는 音節만을 對象으로, 그 속에 들어 있는 母音을 조사해 보면, 그 母音은 [ə], [ɪ], [ʌ]의 세 母音임을 알게 된다. 이 세 母音은, 그 音節이 弱音節이 아니라는 理由를 提示하지 못하는 限, 弱母音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本稿는,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이 세 母音을 弱母音으로 본다.

[ə]를 흔히 曖昧母音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애매한 音價를 가진 母音은 強母音 중에는 없다. 따라서, 이 [ə]는 弱母音이다(上記 (2a)).

Wise(1957: 91)는 meaty 속에 들어 있는 두 母音, 또 misty 속에 들어 있는 두 母音은 각각 서로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meat-, mist-, -y속의 세 母音은 각각 다르다는 말인데, 이렇게 되고 보면, 이 -y[-ɪ]와 같은 音價를 가진 母音은 強母音 중에는 없다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語尾)의 [ɪ]는 弱母音이다(上記 (2a)). Webster's Third (1961: 34a)는 rapid의 발음을 [ræpəd]로 表記하고 있는데, 이 [ə]는 [ə]와 [ɪ]의 두 母音을 합쳐서 한 記號로 나타낸 것으로서, 弱音節에만 나타난다고 한다. 그런데, 이 [ə]는 분명

한 [ə]와 분명한 [ɪ]를 합친 記號라기 보다는, [ɪ]에서 [ə]에 이르는 無數의 音을 包括하는 記號라고 봄이 좋다. 이렇게 보면, 이 경우의 [ɪ]는 不安定한 音價를 가진 母音, 즉 弱母音이 된다(上記 (2b)). 大部分의 辭典이나 音聲學書에서는 強母音이나 弱母音이나 다 같이 [ɪ]로 表記하고 있는데(가령, misty[mɪstɪ]), 一部에서는 이 두 가지 母音에 다른 記號를 充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大西(1948: 42)는 強母音은 [ɪ], 弱母音은 [ɜ]로 각각 다른 記號를 사용하면서(가령, [mɪstɜ]), 「[ɜ]를 單音으로 認定한 것은 … 音聲學上的 큰 進歩로서, 語學教育上으로도 도움이 되는 바 크다」고 말하고 있다. 以上으로 부터 (여러 資料들의) 共通弱音節 속에 나타나 있는 [ɪ]는 弱母音이라고 할 수 있다.

Webster's Third (p. 46a)는, ammunition을 正常速度로 말할 때, 이 단어의 -u-의 발음은 [ju]인지 [jə]인지 들어서는 識別하기 어렵다고 한다. *Webster's Third*는 [jə] 쪽을 택하고 있지만, 여기에서의 문제는, 어느 쪽을 택하느냐 보다, -u-의 발음이 [ju]에서 [jə]에 이르는 無數의 音을 包括하는 音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u]는 不安定한 音價를 가진 母音, 즉 弱母音이 된다(上記 (2b)).

以上, 音價를 중심으로 [ə], [ɪ], [u]가 弱母音임을 살펴 보았다. 결론부터 먼저 말한다면, 本稿에서는 이 세 母音만을 英語의 弱母音으로 보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本稿를 위한 여러 資料들의 共通 弱音節 속의 母音만이 本稿의 弱母音이 된 셈이다.

인제부터는, 本稿의 弱母音 [ə], [ɪ], [u]는 強母音과는 音價面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視覺적으로 明示하기 위해서, 이 세 弱母音만을 [ə], [ɪ], [u] 처럼 이탤릭체로 表記하도록 하겠다. 이를 테면, animal[ænəməɪ], city[sɪtɪ], strenuous[stɹénjuəs] 등.

2.3. 關 聯 事 項

2.3.1. 二重母音. 英語의 二重母音, 가령, care[kɛər], date[déɪt], house[háʊs]등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이 內包되어 있다. 첫째, 그 第1要素는 強母音이고, 그 第2要素는 弱母音(실은, 第1要素의 移動方向)이다. 둘째, 그 第2要素는 그 音價가 不安定하다(가령, I'm은 [á:m]로 발음될 수 있다). 셋째, 그 第2要素는 [ə], [ɪ], [u] 중의 어느 하나며, 이 이외의 母音은 第2要素가 될 수 없다. 즉, 二重母音에 보이는 現象은 英語 全般에서 보이는 母音의 弱化現象을 한 母音 속에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만일 長音의 인 meat, moon, calm, law의 발음을 각각 [mí:t], [mú:ʌn], [káəm], [lɔ:]처럼 二重母音으로 表記한다면(이것은 本稿의 表記法), 위의 二重母音에 대해서 말한 사실은 이 경우에도 그대로 適用된다. 특히 注目하고 싶은 것은, 上記 세 제의 「그 第2要素는 [ə], [ɪ], [u] 중의 어느 하나」다. 이것은 英語弱母音으로서의 [ə], [ɪ], [u]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줌과 동시에, 이 세 弱母音이 英語弱母音으로서의 最下線, 즉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下限線임을

가리켜 준다.

2.3.2. 弱形. 英語 단어 중에는 소위 强形(strong form)과 弱形(weak form)의 두 가지 發音型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다. 그 數는 그리 많지 않으나, 이것이 英語의 實際面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매우 크다. 英語로 하여금 英語 特有的 리듬을 갖게 해 주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몫을 다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指摘하고 싶은 것은, 「强形→弱形」은 (成節子音으로 弱化되는 경우 除外) 「强母音→[ə], [i], [u]」라는 점이다. 이를 보면, can[kæn→kən], we[wɪ→wi], What is it coming to[-túu]→to open[tu ópən] 등. 한 가지 덧붙여 두고 싶은 것은, 흔히 he의 弱形으로 表記되어 있는 [i]에 대해서다. 이 [i]가 단순히 [hi]에서 語頭的 [h]가 消失된 音形이라면, 필자는 이것을 he의 弱形이라고 보지 않는다. 同一한 強勢型이면서도 hostler에 두 가지 발음 [háslər], [áslər]가 있듯이, 語頭的 [h]가 발음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 音節의 强·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母音의 音價가 변화(약화)함으로써만이 强形과 弱形이 구별된다. 따라서, [i]를 [hi]의 弱形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위의 「强母音→[ə], [i], [u]」에는 이러한 해석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아 물론, 强母音이 弱化될 때, 그 弱化된 母音은 [ə], [i], [u] 중의 어느 하나가 된다는 것은, 上記 二重母音 때와 마찬가지로, 英語弱母音으로서의 [ə], [i], [u]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3.3. 그 외의 弱母音? 어느 한 資料에서는 弱音節, 다른 資料에서는 强音節로 表示되어 있는 音節 속에는 [ə], [i], [u] 외의 弱母音은 없는가?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Webster's Third(1961)의 弱音節에 나타나 있는 ([ə], [i], [u] 외의) 母音を 살펴 보았다.

(3) (a) follow continue alumnae
[faləu] [kəntɪnjuu] [əʌmni:]
1(2) 0 1 (2) 0 1 (2)

(b) denotation
[di:nouteɪʃən]
2 0 1 0

(數字 0은 弱音節, 1은 第1强音節, 2는 第2强音節을 각각 나타낸다.)

(3a)는 第2強勢符號가 괄호 속에 表記되어 있는 예인데, 이 符號는 第2強勢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Kenyon & Knott(1944)는, follow의 -ow의 발음에 대해서, 이 -ow를 [ou]로 발음하는 일은 거의 없고, [u]와 거의 같은 音 또는 [ə]로 발음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解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ou]로

발음했을 때의 -ow는 強音節이고 (二重母音은 [強音+弱音]이기 때문), [u] 또는 [ə]로 발음했을 때의 -ow는 弱音節이다. 위의 Kenyon & Knott에 따라 -ow를 弱音節로 본다면, follow, potato, window 등의 對話體發音은 각각[fálu], [pətéitu], [windu]가 된다. 마찬가지로, continue, value, menu 등의 끝音節을[ju:]로 발음하면 그音節은 第2強音節이 되고, [ju]로 발음하면 弱母音이 된다. Webster's Third (p. 46a)는 unite의 u-의 발음으로 [ju:], [ju], [jə]의 셋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ju:]라면 u-는 第2強音節, [ju] 또는 [jə]라면 弱音節이 된다. alumnae의 nae도 [-ni:]라고 발음하면 第2強音節이 되고, [-ni:]라고 발음하면 弱音節이 된다. 다음은 以上을 綜合한 것이다. 즉, 二重母音(長音的인 母音도 包含)의 第1要素는 強音이기 때문에, 이 第1要素가 그音價를 그대로 保存하고 있으면, 실사 그 第2要素가 消失된다 하더라도, 그 二重母音은 強母音이 된다. 만일 第1要素가 消失되고 第2要素가 남는다면, 第2要素는 弱音이기 때문에 그 二重母音은 弱母音이 된다.

다음은 (3b)의 denotation의 第2音節의 [ou]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이 [ou]에 대해서도 follow의 -ow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ou]의 弱化過程인 [ou→o→u→ə]의 全過程을 통해서, 앞 두 音은 強母音에 속하고, 뒤 두 音은 弱母音에 속한다. 그런데, 對話體發音을 念頭에 둘 때에는, denotation의 第2音節은 弱音節로 봄이 타당하다. 리듬의 영향이 豫想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단어의 第2音節의 母音의 발음으로서는 [u]가 적합할 것이다. 參考로 말하지만, connotation의 第2音節의 母音의 발음은 [ə]다.

以上은, 문제의 音節을 弱音節로 보면, 결국, 그 弱音節의 母音이 [ə], [i], [u] 중의 어느 하나가 되는 경우 뿐이었다. 그런데, 다음의 (4)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 Webster's Third도 弱音節로 表示하고 있는 이 語頭의 音節에는 거의 모든 母音이 나타난다.

(4) gestátion vocátion Latínity

[ɛ] [ou] [æ]

(4)의 단어는 모두 第2音節이 第1強勢를 받는 어들인데, 이들 단어의 第1音節은, 上記 母音으로 발음하는 限, 第2強勢를 받는다. Chomsky & Halle(1968:118)는 變形循環(transformational cycle)이란 原理를 이용해서, gestation, vocation의 第1音節에는 第2強勢가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gestation에서 처럼 第1音節의 母音과 第2音節의 母音 사이에 둘 以上の 子音이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vocation에서 처럼 第1音節의 母音이 [eɪ], [iɪ], [aɪ], [ou], [ju:] 중의 어느 하나일 경우에는, 그 第1音節의 母音은 第2強勢를 받는다는 것이다. 前者의 例로서는 plāntation, Mōntāna, cāntānkerous, lāmpoon 등이 있고, 後者의 例로서는 āudácious, lōcation, tōtality 등이 있다. 그런데, Latínity의 경우에는 왜 第1音節에 第2強勢가 오느냐에 대해서는 明確한 설명이 없다. 그것

은 Latinity의 La-는 위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Latinity에 대해서 心理的 聯想과 上記 變形循環을 합침으로써,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 즉,

(5) Látin → Látínity → Lâtínity

[æ]	[æ]	[æ]
1 0	1 1 0 0	2 1 0 0

우선, Látin을 聯想하고, 다음, 接尾辭 -ity 때문에 第1強勢가 -tin-으로 옮겨지고, 마지막으로는, 變形循環規則을 適用해서 第1音節의 強度를 1度 낮춘다. 佛語에서 넘어온 chateau에 대해서도, 각 音節이 同一한 強勢를 갖는다는 것을 出發點으로 한다면, 다음의 (6)처럼 그 強勢型을 정할 수 있다.

(6) châtéau → châtéau

[æ]	[æ]
1 1	2 1

以上을 綜合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第2音節에 第1強勢가 놓이고, 第1音節의 母音이 [ə], [i], [u] 이외의 母音일 때에는, 그 第1音節은 第2(등의) 強音節이다.

결론적으로, 本稿의 資料 사이에서 弱音節, 第2強音節의 異見이 있는 音節은 第2強音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모든 경우를 통해서, 英語의 弱音節에 나타날 수 있는 母音은 [ə], [i], [u]의 세 母音이라는 말이 된다.

2.3.4. 基本 三母音. 母音/i, a, u/는 實質的으로 모든 言語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 母音을 基本 三母音(basic three vowels)이라고 한다. 또, 어린 애들 말에서 맨처음 나타나는 母音도, 이를 테면 papa, mama, dada, kaka, pipi, pupu처럼, 이 세 母音이라고 한다. 왜 이 세 母音은 모든 言語에 나타나고, 어린 애들 말에서 맨처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Schane(1973)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이 세 母音은 그 聽覺距離가 서로 가장 멀기 때문에, 그 音이 서로 가장 明確하게 구분된다. 따라서, 어린 애나 世界의 言語가 이 세 母音을 맨처음에 택하는 것이다(p.10). 人間이 웃기 위해서 口술을 左右로 잡아당기고 (/i/의 調音 形狀), 울기 위해서 口술을 벌리고 (/a/의 調音 形狀), 빨기 위해서 口술을 오므리는(/u/의 調音 形狀) 등, 태어난 後 맨처음에 自然的으로 익히게 되는 音聲器官의 움직임에도 그 한 理由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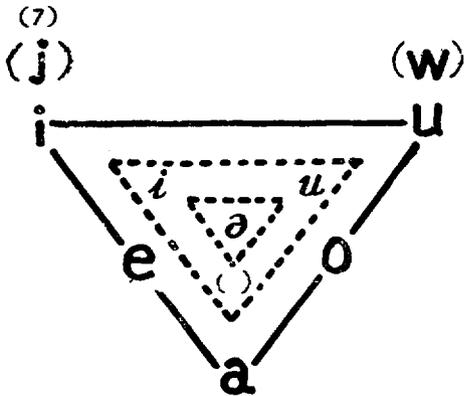
그런데, 英語의 弱母音 [ə], [i], [u]는 바로 이 基本 三母音에 對應하는 母音이다. 弱母音이면서도, 相互間에 最小限의 聽覺距離를 두려면, 自然히 基本 三母音에 對應하는 母音

이 되지 않을 수 없다. 英語 뿐만 아니라 러시아語에도 이 세 弱母音이 있다는 사실은, 아주 우연한 一致라기보다, 위와 같은 言語一般의 特質에서 온 自然的인 結果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 印歐祖語에서, 短母音 /i, u, ə/, 長母音 /i:, u:/는 弱音節에만 나타났다가 (Wright & Wright, 1925: 19)는 것도 결국 똑 같은 理由라고 생각된다.

Ⅲ 弱母音과 그 音聲環境

3.1. 弱母音 相互間의 關係

아래의 (7)은 英語 弱母音 사이의 關係를 나타낸 圖形이다.



왼 쪽 圖形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實線三角形 위의 母音은 英語의 強母音을 나타내고 (煩雜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強母音만을 表示했다), 그 바로 안쪽에 있는 點線三角形 안의 母音은 第2弱母音을 나타내며, 가장 안쪽에 있는 點線三角形 안에 있는 母音은 第1弱母音을 나타낸다. 第2弱母音이나 第1弱母音이 點線「위」에 表示되어 있지 않는 것은, 그 弱母音의 領域이 點이 아니라 面積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것은, 強母音은 點的 存在요, 弱母音은 面的 存在, 바꿔 말한다면, 強母音은 단독으로도 분명히 발음할 수 있으나(즉, 그 調音點이 安定되어 있으나), 弱母音은 단독으로는 분명히 발음하기 어려운(즉, 그 調音點이 不安定한) 音을 가리킨다. 또, 빈 팔호로만 表示되어 있는 第2弱母音은, 理論上으로는 또는 (7)의 圖形의 均衡上, 있을 것이 豫想되나, 실제의 英語 發音表記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는 音을 가리킨다.

지금, (7)의 圖形을 이용해서 母音의 弱化過程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實線三角形 위의 強母音은 우선 第2弱母音으로 弱化된다. 더 弱化될 수 없는 條件이 없는 경우에는, 이 第2弱母音은 다시 第1弱母音으로 된다. 母音文字를 중심으로 한다면, 이 弱化過程은 다음의 (8)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8)

母音文字	i	e	a	o	u
第2弱母音	i				u
第1弱母音	ə				

i는 [i]를 거치고, u는 [u]를 거쳐서 [ə]로 弱化된다. e는 [i]를 거치고, o는 [u]를 거쳐서 [ə]로 弱化되거나, 또는 e, o 모두 직접 [ə]로 弱化되거나 한다. a는 직접 [ə]로 弱化된다. 만일 a가 [ə] 이외의 弱母音を 가지게 되면, 그 弱母音은 [i]다. 왜냐 하면, a의 正常音價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æ], [ei]의 前舌母音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母音文字 a, e, i, o, u, (y)가 弱化될 때의 弱母音은 각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ə]요, 또 하나는 각 字母의 이름 [éi], [íi], [ái], [óu], [júu] (, [wái])의 끝母音 (二重母音의 第2要素)이다.

以上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ə]는 弱母音 中 弱母音이다. 弱音節의 母音은 모두 [ə]가 되려는 傾向이 강하다. 일단 [i]나 [u]가 된 母音도 더 弱化되면 [ə]가 된다. 調音上으로나 聽覺上으로나 그 音이 애매해서 曖昧母音이라고도 하지만, 이 [ə]는 英語의 어떤 母音보다도 더 많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ə]는 後續하는 子音 속에 吸收되어 成節子音을 낳게도 한다.

그러나, 本章에서는 이 「弱母音 中 弱母音」을 직접 다루지는 않고, 대신, 나머지 두 弱母音인 [i], [u]만을 다루었다. [i], [u]가 나타나는 경우가 결정되면, [ə]가 나타나는 경우는 「그 外의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意味에서 以下에서는, 우선 母音 앞의 弱母音을 檢討하고, 이어서 [i], [u]의 순서로 각각 그 音聲環境을 調查하기로 한다.

3.2. 母音 앞의 弱母音

英語에서 두 母音이 서로 連結될 때에는, 그 두 母音 사이에 [j], [w], [ʔ]중의 어느 한 音이 끼어 들어간다. 前舌母音인 [i] 또는 [i] ([ei], [ai], [ɔi] 包含)로 끝난 단어에 母音으로 시작된 단어가 休止 없이 後續할 때에는, 그 두 母音 사이에 [j]가 끼어 들어가서, 두 母音을 連結시켜 주는 橋梁的 역할을 한다. 이를 테면, see it [si:jət], the ultimate [ðijáltəmət], stay out [stèijáut], die out [däijáut], toy auto[tóijóatu] 등. 또, 後舌母音인 [u], [u] ([ou], [au] 包含), [ɔə]로 끝난 단어에 母音으로 시작된 단어가 休止 없이 後續할 때에는, 그 두 母音 사이에 [w]가 끼어 들어가서, 두 母音을 連結시켜 주는 橋梁的 역할을 한다. 이를 테면 too easy[túwízi], to eat[tuwíit], raw apples [rɔuwæpəlz], go on[gðuwón], bow out[bâuwáut] 등 (raw a(pples)[rðə+æ→rɔu+æ→

rɔ̃u + w + æ] (私見)). 그리고, 中舌母音인 [ə]로 끝난 단어에 母音으로 시작된 단어가 休止 없이 後續할 때에는, 그 두 母音 사이에 聲門閉鎖音 [ʔ]가 끼어 들어가게 된다. 이를 보면, Anna asks [ænaʔ æsks], Ada Adams [æɪdæʔ ædæmz] 등 (Wise, 1957: 127-28). 以上에서는, 한 단어의 끝母音과 그 後續 단어의 첫母音 사이에서 일어나는 現象만을 例로 들었는데, 이 現象은 한 단어 속에서, 어떤 母音과 그 後續 母音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이처럼, 두 母音 사이에 [j], [w], [ʔ]가 끼어 들어가는 現象은 英語의 발음에서 「規則的」인 것일까? Wise(1957: 127)는 母音 사이에 挿入되는 [j]에 대해서, 「이 [j]는 들어서는 識別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며, 또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이 이 [j]를 끼어서 발음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Bronstein(1960)도, 後續 音節에 조금이라도 強勢가 있는 경우에는, 그 두 音節 사이에 [j]를 挿入하는 발음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p. 124), 또 [w]를 挿入하는 발음은 敎養人의 발음에서도 볼 수 있다 (p. 113)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는, [j], [w]의 挿入은 自然的이고 또 規則的인 現象이라 보아도 될 것 같다. 그러나, Bronstein은 이렇게도 말하고 있다. [j], [w]의 挿入은 認定하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만 발음한다는 것은 속된 발음이라 생각되고 있으니, 조심스럽게 발음하는 사람은 그런 식 발음을 可及的 피하고 있다고. 以上을 綜合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無意識的으로 발음할 때에는, [j], [w] ([ʔ])가 자연히 끼어 들어간다. 要는 [j], [w]의 強度가 문제다. 만일 약한 強度의 [j], [w]를 [j], [w]로 表記한다면, 連續 두 母音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j], [w], [ʔ]에 대해서, 다음의 (9)-(11)처럼 이를 規則化할 수 있다.

(9) $\phi \rightarrow [j]/[i] - V$

(10) $\phi \rightarrow [w]/[u] - V$

(11) $\phi \rightarrow [ʔ]/[ə] - V$

즉, [i]와 그 後續 母音 사이에는 [j]가 끼어 들어가고 (9), [u]와 그 後續 母音 사이에는 [w]가 끼어 들어가며(10), [ə]와 그 後續 母音 사이에는 [ʔ]가 끼어 들어간다(11). 한 가지 注目해야 할 점은, 單母音이든 二重母音의 第2要素든 長音의 母音의 第2要素든, 母音連結 時의 앞母音은 弱母音인 [i], [u], [ə]라는 점이다. 이 세 弱母音 이외의 母音은 (英語의) 母音連結 時의 앞母音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所見이다. 설사 세 弱母音 이외의 母音이 앞母音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런 母音連結形에 代置되는 발음이 자연히 생긴다는 것이다. 「서울」의 발음 중에 [sʌul] (Webster's Third)도 있지만, 보다 일반적인 발음은 [sɔ̃ul]이라는 것이 그 한 例다.

그런데, 母音連結 時, 두 母音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j], [w], [ʔ] 중에서 [ʔ]는,

[j]나 [w]처럼 두 母音을 부드럽게 連結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ㅍ의 부드러운 흐름에 斷切을 가져 오게 한다. 여기에서, 「[ə]+母音」을 可及的 ㅍ하리는 움직임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忌避現象은 소위 「r 連結」(r-linking)(가령, 語尾의 r을 발음하지 않는 사람의 hear it[híə(r)ət])이라든지, 또는 「r 挿入」(소위 “intrusive r”에 의한 現象, 가령 America and England[əməˈrəkə(r)əndɪŋɡlənd])에서도 볼 수 있다. 母音 앞에서는 不定冠詞 [ə], [ən] 중 [ən]쪽을 사용하는 것도, 또, 母音 앞에서는 定冠詞 [ðə], [ði] 중 [ði]쪽을 사용하는 것도, 모두 「[ə]+母音」을 ㅍ하기 위해서다.

이 忌避現象은 한 단어 안에서도 보인다. 여기에서는, 接辭를 붙임으로써 母音連結이 생기는 경우만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extraordinary는 extra+ordinary, 즉 [-ə]+[ɔ-]가 된다. 이것을 忌避하기 위해서, 앞母音 [-ə]를 省略, 결국 [ɪkstr()ɔrd-]가 된다.

Buddhism(Buddha[-də]+ism)은 당초 語形에서부터 「[ə]+母音」을 ㅍ하고 있다. 물론 Judaism(Juda[-də]+ism)같은 語形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dʒúːdə-] 외에 [dʒúːdi-]가 사용됨으로써, 「[ə]+母音」을 ㅍ할 수 있는 餘地가 마련 되어 있다. 설사 이런 餘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단어(가령, ultraism)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드문 例에 속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한 단어만을 상대로 할 때, 母音 앞에 나타날 수 있는 弱母音은 [ə], [ɪ], [u] 세 弱母音 중의 [ɪ](가령, abbreviate[əbrɪvɪjèɪt])와 [u](가령, strenuous[stɹɛnjuwəs])다.

3.3. 弱母音 [ɪ]

3.3.1. 音聲環境. 母音 앞에 나타나는 [ɪ]를 제외하고는, 弱母音 [ɪ]는 (12)의 네 接尾辭 속에 나타나 있다.

- (12) (a) -y [-ɪ] (body, capacity)
 (b) -ish [-ɪʃ] (English, finish)
 (c) -ing [-ɪŋ] (going, interesting)
 (d) -ic [-ɪk] (music, democratic)

이들 接尾辭가 日常 사용되는 단어 속에 흔히 나타나는 接尾辭라는 점, 다른 ㅍ에 比해서 [ɪ]가 歴史的으로 가장 安定된 ㅍ이라는 점, 後續 子音의 調音點이 대충 母音 調音點의 範圍 안에 있다는 점, 등의 세 角度로 (12)를 檢討해 보려 한다.

文法的으로 볼 때, 接尾辭는 한 단어와 거의 같은 정도의 중요한 比重을 차지한다. 統語的인 機能과 그 단어의 뜻이 크게 작용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接尾辭의 발음에 대해서

도 자연히 관심을 더 가지게 된다. 만일 그 接尾辭가 常用 接尾辭라면, 당초 固定되었던 그 接尾辭의 발음은, 설사 변화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변화를 서서히 받는다. 그만큼 발음이 오래 持續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接尾辭는 그 단어의 強勢型까지 결정할 때가 많다. 이런 점까지 考慮에 넣는다면, 接尾辭는 統語·音韻·意味의 세 部門에서 고루 重要的 意義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重要性이, 上記 네 接尾辭 중의 i字로 하여금, 그 代表音價 /i/를 比較的 오래 지닐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생각된다. bailiff, civil, promise 등의 끝音節 속 i字가 [ə]로 弱화되는데도, (12)의 接尾辭 속 i字가 [i]를 保存하고 있는 한 가지 理由도 接尾辭의 이 重要性에 있다.

또, 이 [i]가 歴史的으로 安定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古代英語 때의 거의 모든 母音이 어떤 變遷過程을 거쳐서 오늘날의 音이 되었지만, [i]는 예나 이제나 그 音이다. 물론, 옛날의 [i]의 音價가 어떤 音價였는지는 正確히 알 길이 없으나, 文字上으로만 볼 때에는, [i]의 文字 i가 다른 母音文字로 變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이다. 이를 보면, OE sittan→ME sitten→ModE sit. [i]가 가지는 이런 오랜 歴史가, 弱音節인데도 ([ə]가 되지 않고) [i]일 수 있게 한 먼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過去에 [i]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接尾辭(즉, i字를 가진 接尾辭)는 모두 그 [i]를 지금도 지니고 있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은 理由는 무엇일까?

(12)의 接尾辭들이 가지고 있는 그 音聲環境이 한 가지 理由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音聲環境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12)는 (13)이 된다. (C₀은 그 자리에 子音이 있어도 없어도 됨을 나타낸다.)

$$(13) \quad \begin{array}{l} [-stress] \\ i(\text{또는 } y)\text{字} \rightarrow [i]/ \end{array} \left\{ \begin{array}{l} -\# \\ -[\$]C_0\# \\ -[n]C_0\# \\ -\left\{ \begin{array}{l} [k] \\ [g] \end{array} \right\} C_0\# \end{array} \right. \begin{array}{l} (a) \\ (b) \\ (c) \\ (d) \\ (e) \end{array}$$

이런 音聲環境을 생각하게 된 動機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있다. 이를 보면, phoenix[fi'niks]의 끝音節은 接尾辭 -ic가 아니며, 또 그 音形式도 [-ik]가 아니라 [-iks]다. 이 단어를 -ic型의 단어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려면, 接尾辭란 概念을 잠시 떠나서 音聲環境이란 概念을 導入할 수 밖에 없다. (13)의 (d)가 필요한 理由는 여기에 있다. 또, Leipzig[láipsig]의 [-ig]도 接尾辭가 아니다. 만일 [ik]에 對慮하는 有聲音形 [-ig]를 [-ik]와 同一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假定한다면, -ig속의 [i]도 誰이 설명된다. (13)의 (e)가 필요한 理由는 여기에 있다. 단, 한 가지 附言해 둘 것은, 音聲環境을 導入한다 해서 接尾辭의 重要性을 輕視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弱母音[i]에 관한 限, 어디까지나 基本은 接尾辭, 그

般適用이 音聲環境이다.

한편, (13)의 [i] 直後에 오는 子音を 全体的으로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즉, [ʃ], [ɒ], [k], [g]는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調音點이 母音의 調音領域 안에 있거나([ɒ], [k], [g]), 또는 그 領域에 가장 近接한 곳에 있다([ʃ]).

(14)

齒 莖	硬 口 蓋	軟 口 蓋
		k
		g
	ʃ	ɒ
	前 母 音	後 母 音

3.3.2. 環境의 移動. 環境의 移動이란 (13)의 (a), (b), (c), (d), (e)를 끝音節이 아닌 다른 音節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옮기는 경우, 그 속의 [i]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 보려는 것이 이 節의 目的이다.

다음의 (15)를 보자.

- (15) (a) easily [-zəli]
 easiness [-zɪnəs]
 (b) banishing [-nəʃɪŋ]
 banishment [-nɪʃmənt]
 (c) interestingly [-ɪŋli]
 interestingness [-ɪŋnəs]
 (d) (economic→)economical [-mækəl]
 (panic→)panicky [-nəkɪ]
 publicly [-ɪkli]
 publically [-ləkəlɪ]

위 (15)를 통해서 다음의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째, [i] 있는 接尾辭(-y, -ish, ing, -ic)에 다시 [i] 있는 接尾辭(-ly, -ing, -y, ...)가 後綴할 경우, 두 [i] 사이에 子音が 하나 있으면, 앞接尾辭의 [i]는 [ə]로 弱화되고 (가령, 上記 easily의 -i-), 두 [i] 사이에 子音が 둘 이상 있으면, 앞接尾辭의 [i]는 [ə]로 弱화되지 않는다 (가령, 上記 interestingly에서 ing의 -i-). 위에서 [i]가 [ə]로 弱화되는 경우는 다음의 (16)처럼 나타낼 수 있다. (C는 한 개의 子音を 나타낸다.)

(16) 끝音節의 [i]→[ə]/-C[i]C.

條件: 끝音節≠[-iŋ]

[-iŋ]은 어느 곳에 나타나든 閉音節이기 때문에, (16)에서 除外된 것이다. easy→easily를 例로 들어 (16)이 나온 過程을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다. 接尾辭의 性格上, 끝音節의 接尾辭가, 語中으로 위치가 바뀌어진 接尾辭보다 더 큰 比重을 가진다. 따라서, 원래 똑 같은 [i]였는데도, easily의 -i-는 그 위치 때문에 -y보다 比重이 작아진다. -y[-i]보다 더 弱化될 餘地가 -i-에 생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語中の 弱母音은 [ə]가 되려는 一般傾向을 가진다. 단어에 흐르는 리듬도 影響을 준다. 결국, 이러한 몇 가지 事項이 相互作用을 함으로써, easily의 -i-는 [ə]로 弱化되는 것으로 본다. busy, happy, merry 등 「子音+y」形의 形容詞에 接尾辭 -ly가 添加될 때, 그 副詞가 각각 [bízəli], [hápəli], [mérəli] 등으로 발음되는 것도 위 easily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또, (15b)의 banishing 처럼 abolish, finish, polish 등 -ish形의 動詞의 現在分詞가 각 각 [əbáləʃiŋ], [fínəʃiŋ], [páləʃiŋ] 등으로 발음되는 것이나, frolic(動詞)의 現在分詞가 [fráləkiŋ]으로 발음되는 것도 같은 現象이다.

둘째, (15a)의 easiness[-zínəs]처럼, [i]있는 接尾辭(가령, easy의 -y)에, 母音이 [ə]인 接尾辭(가령, -ness)가 後續할 경우에는, 앞接尾辭의 [i]는 그대로 [i]로 발음된다.

以上, (13)에 附隨되는 문제들을 살펴 왔다. 그런데, (13)은 「i(또는 y)字→[i]」의 경우였고, 또 지금까지 例舉한 것도 모두 그 경우의 단어들이었다. 그러나, 「i(또는 y)字」를 다른 母音文字로 바꿔 놓더라도 (13)이 適用되려는 傾向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 barrack [bærək]를 일부에서 [bærík]로 한다면, paddock[pædək]의 接尾辭 -ock를 일부에서 [-ík]로 한다는 등이 그 一例다. 여기에 例示한 [-ík]는 綴字보다 [-()k]라는 音聲環境을 더 認識한 結果다. 이것은 (13)을 (13)의 範圍 밖으로, 즉 i(y) 이외의 母音文字의 경우에까지, 擴張하려는 傾向을 보여 주는 것인데, 이러한 擴張傾向은 뚜렷한 規則을 이룰 정도로 顯著하지는 않은 것 같다. 따라서,上記 barrack나 paddock도 아직은 [-ək]로 봄이 無難할 것이다.

다음은 이와 같은 現象을 語中音節이나 語頭音節에서 찾아본 것이다. (13)의 音形 [i], [iŋ], [ík], [íg]는 모두 閉音節이기 때문에, 語中音節이나 語頭音節에서도 그것이 閉音節의 경우에만 (13)의 擴張適用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上記 네 音形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ík], [íg]다. 이미 例舉한 바 있는 banishment는 語中音節에 閉音節인 [i]가 나타난 例이고, Whashington은 역시 語中音節에 閉音節인 [iŋ]이 나타나 있는 例이지만, 이런 例들은 그 數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ík], [íg]形의 閉音節만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désignation[-ig-], *significance*[sig-], *anecdote*[-ik-], *except*[ik-] 등에서 볼 수 있듯이, 語中이나 語頭의 閉音節(弱音節)에 나타난 母音文字가 i 또는 e일 때에는, 그 i 또는 e는 [i]가 된다. (8)에 의해서, [i]가 될 수 있는 母音文字는 i 또는 e이기 때문이다.

*désignation*과 同一한 音形이 豫期되는 *résignation*에는 [-ig-] 외에 [-əg-]가 添加되어 있지마는, 「i 또는 e는 [i]가 된다」라는 위의 一般規則에는 별 影響은 주지 않는다.

그런데, i 또는 e 以外の 母音文字, 즉 a, o, u의 경우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accept*가 *except*와 마찬가지로 [ik-]인 것은 (13d)의 擴張이라고는 볼 수 있으나, 이 *accept*에는 [ək-]라는 발음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galaxy*에는 [-ik-]라는 발음이 豫期되지만, 이 단어의 발음은 [-ək-]다. 일면 *character*에는 (-ək-), (-ik-) 두 발음이 併記되어 있다. 以上에서, 閉音節(弱音節)에 나타나 있는 a는 일반적으로는 (ə)이지만 (i)도 적지 않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uccess*(sək-)에는 일부에서 사용되는 발음(sik-)가 添加되어 있으나, *suggest*(səg-)에는 (sig-)라는 발음이 添加되어 있지 않다. 또, *recognize*에는 (-əg-), (-ig-) 두 발음이 併記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綜合해 볼 때, a, o, u가 (()k) 또는 (()g)形의 閉音節(弱音節)에 나타나면, 아직은, 일반적으로는 (ə), 경우 따라 (i)로 발음된다고 할 수 있다.

3.3.3. 關聯事項. 3.3.1과 3.3.2에서는 接尾辭-y, -ish, -ing, -ic를 出發點으로 한 여러 音聲環境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上記 네 接尾辭 이외의 接尾辭에 대해서 몇 가지 言及하려 한다.

接尾辭 -ive와 -age에 대해서는 그 발음을 (-iv), (-id₃)로 表記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그런데, 이 接尾辭에 대한 *Webster's Third*(1961)의 音聲表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ive(iv also əv)((i)는 本稿의 表記法), -age(id₃ also əd₃). 여기의 also는 “appreciably less frequent”를 나타낸다. *Webster's Third*의 이 表記로 보면, -ive(iv), -age(id₃)가 (əv), (əd₃)보다 더 一般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Chomsky & Halle(1968)는 demonstrative, generative, indicative, contemplative 등의 -ive를 모두 (əv)로 表記하고, 또 courage의 -age를 (əd₃)로 表記하고 있다. 이처럼, 論者에 따라서 (i)와 (ə) 사이에 搖動이 있다는 것은, 이 두 弱母音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쉬이 결정하기 어려운 事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i)와 (ə)사이의 搖動은, (i)에서 (ə)에의 移動過程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필자의 獨斷의 所見에 의해서, -ive, -age를 각각 (əv), (əd₃)로 취급했다.

以上에서 論한 接尾辭 외의 接尾辭는, -ism, -ship등 第2強勢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弱母音이 (ə)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를 테면, -ed[-əd], -est[-əst], -et[-ət], -ity

[-əti], -less[-ləs], -ness[-nəs] 등. 다만, 한 가지 덧붙여 둘 것은, 그 音聲形式에 의해서 接尾辭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테면, 接尾辭 -ling은 그 音聲形式이 接尾辭 -ing에 속하기 때문, -ling을 -ing과 같이 취급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閉(弱)音節에 대해서 論했지만, 開(弱)音節의 경우는 상황이 비교적 간단하다. 開(弱)音節에서는 모든 母音文字가 (母音 앞에 있는 경우와 다음 節에서 論할 [u]의 경우를 제외하고) [ə]로 弱화된다는 것이 英語의 一般規則이다. 설사 「一般規則」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方向으로 英語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은 否定하지 못할 것 같다. 이 一般規則은 接頭辭의 경우에도 適用된다. 이를 테면, *becôme*[bə-], *denôte*[də-], *prepāre*[prə-], *religion*[rə-] 등.

3.4. 弱母音(u)

弱母音[u]는, 母音 앞에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音聲表記에서는 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Kenyon & Knott(1944)의 表記에서는 그렇다. 앞에서 論한 [i]는 前舌母音에 속하기 때문에, [ə]와의 聽覺距離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相互區分을 하기가 쉽지만, [u]는 後舌母音에 속하기 때문에, [ə]와의 聽覺距離가 비교적 가까와 相互區分을 하기가 어려울 때도 생긴다. 18世紀의 學者 Johnston이, 語尾의 -on, -our, -ous, -some, -ceous, -cian 등의 발음을 -un, -ur, -us, -sum, -shuss, -shun처럼 해야 한다고 主張한 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Jespersen, 1954 : 249), [u]와 [ə]와의 聽覺距離가 어느 정도 가까우나 짐작할 수 있다. curriculum(kərikjələm)이 위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 *Webster's Third*(1961)는 母音 앞에서마저 [u]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대신, [əw]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테면, strenuous에 대해서 kenyon & Knott가 [strɛnjuəs]로 表記하고 있는데 反해서, *Webster's Third*는 (strɛnjəwəs)로 表記하고 있다. *Webster's Third*의 發音擔當者인 Artin의 解説 要旨는 대충 다음과 같다. silhouette와 Scylla wet는 똑 같이 들린다. 따라서, silhouette의 音聲表記는 Scylla[silə] wet[wet]를 합친 [siləwet]가 되어야 妥當하다는 것이다. 결국, *Webster's Third*는 [u]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된다.

필자는 [u]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Webster's Third*도 [au] 등의 二重母音에서는 [u]를 사용하고 있듯이, 이 [u]를 전혀 쓰지 않을 수는 없다. 특히, 母音 앞에 나타날 때의 to의 弱形을 [təw](*Webster's Third*)로 表記하는 때에는 다소의 문제를 느끼기도 한다. [təw]는 다음에 母音이 올 것을 前提한 表記인데, 이 [təw]속의 [w]는 to에만 속하는 音이 아니라, 後續할 母音에도 속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tə]로

그 弱形을 表記하고, 이에 母音이 後續할 때에는, 本章의 (10), 즉 $\phi \rightarrow [w]/[u]-V$ 에 의해서 $[w]$ 를 挿入하는 節次를 밝는 것이 보다 穩當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III 結 語

英語는 다른 言語에 比해서, 弱音節에서의 母音弱화가 더 深化되어 있는 言語다. 에스파냐語나 이탈리아語에서는, 거의 모든 母音이 強音節에서나 弱音節에서나 音價로 발음된다. 獨語나 佛語에서는, 특히 드문 特別한 例外를 제외하고는, 強勢를 받지 않는 e字만이 $[ə]$ 로 발음되고, 그외는 모든 母音이 強音節에서나 弱音節에서나 音價로 발음된다. 그러나, 英語에서는, 이를 테면 analysis($\partial n \acute{a} l \acute{a} s \partial s$), calculate($k \acute{a} l k \acute{u} l \acute{e} \acute{t}$), develop($d \acute{a} v \acute{e} l \partial p$) 등에서 볼 수 있듯이, a, e, i, o, u, y 중의 어느 母音文字는 強勢를 받지 않을 때에는, $[ə]$ 로 발음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런 現象과, $[ə]$ 가 英語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母音이라는 점과를 아울러 생각한다면, 英語弱音節에서의 母音弱화의 深度가 다른 言語에 比해서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英語의 弱母音은 다른 言語의 弱母音보다 더 깊은 곳에서, 즉, 더 좁은 範圍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다.

그 좁은 範圍를, 本稿에서는 音價를 基準으로 더듬어 보았다. 音價를 基準으로 할 때, 強弱言語의 母音은, 理論上,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純粹強母音(強音節에만 나타날 수 있는 母音), 強弱兩用母音(強音節에도 弱母音에도 나타날 수 있는 母音), 純粹弱母音(弱音節에만 나타날 수 있는 母音)이다. 本稿가 弱母音으로 定한 $[ə]$, $[i]$, $[u]$ 의 세 母音은 위의 純粹弱母音에 해당한다. $[ə]$ 는 cut $[k \acute{a} t]$ 의 母音과 다르고, $[i]$ 는 sit $[s \acute{t}]$ 의 母音과 다르고, $[u]$ 는 put $[p \acute{u} t]$ 의 母音과 다르다. 지금까지, $[ə]$ 를 제외하고는, 強母音이든 弱母音이든 同一한 音聲記號를 사용해 왔지만(above를 $[\acute{a} b \acute{a} v]$ 처럼 表記하는 一部 傾向을 考慮에 넣는다면, $[ə]$ 를 제외)할 필요는 없게 되겠지만), 英語의 強勢型, 특히 리듬을 反映한 英語의 強勢型, 까지도 音聲記號上으로 구분해서 明示하려면, 強母音과 弱母音을 서로 다른 記號로 表示함이 보다 妥當하다고 본다. 때문에, 本稿에서는 弱母音을 $[ə]$, $[i]$, $[u]$ 처럼 이탤릭체로 表記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英語弱音節의 母音은 $[ə]$ 가 되려는 傾向이 강하다. 다만, 歷史的, 統語的, 音聲學的, 또는 心理的인 여러 理由 때문에, 第1弱母音인 $[ə]$ 까지 弱化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그 母音은 第2弱母音인 $[i]$ 또는 $[u]$ 로 弱化된다. 이 $[i]$, $[u]$ 중 後者の $[u]$ 는 $[ə]$ 와의 聽覺距離가 가깝기 때문에, 母音 앞을 제외하고는, $[ə]$ 에 쉬이 吸收되어 버린다. 한 편, $[i]$ 는, 혀의 構造上, 活動半徑이 비교적 큰 前舌部位에서 나는 音이기 때

문에, [ə]에의 深化를 막기 쉬운 調音狀況을 가지고 있고, 또 [ə]와 짝을 이루면서, 英語의 二大弱母音 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 [i]가 있게 된 한 原因은 이 音이 常用 主要接尾辭 -y (-ly, -ity 등 包含), -ish, -ing(-ling 등 包含), -ic 속에 들어 있는 母音이었기 때문이다. 이 接尾辭의 音形 [-i], [-ɪ], [-ɪp], [-ɪk]는 接尾辭가 아닌 語尾의 音節, 더 나아가서는 語中, 語頭의 閉音節에까지 擴張, 適用된다. 아 물론, [ə], [i], [u]는 그 深層部에 [ə], 그 表層部에 [i], [u]를 가진 弱母音組織을 이루면서, 強母音組織과 함께 英語의 母音組織을 構成한다.

引 用 文 獻

- Bronstein, A. J. (1960). *The Pronunciation of American English*.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 Chomsky, N. & Halle, M.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 Harper & Row.
- Hyman, L. M. (1975).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Jespersen, O. (1954).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1, rpt. London : Allen & Unwin.
- Jones, D. (1960).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9th Edition.
Cambridge : Heffer.
- Kenyon, J. S. (1950). *American Pronunciation*, 10th Edition.
Ann Arbor : Wahr.
- Kenyon, J. S. & Knott, J. A. (1944). *A Pronouncing Dictionary of American
English*. Springfield : G. & C. Merriam.
- Ladefoged, P. (1975). *A Course in Phonetics*.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 大西雅雄 (1948). 「英語發音の研究」. 東京 : 旺文社.
- Prator, C. H. (1957).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Schane, S. A. (1973). *Generative Phonology*. Ea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1961). G. & C. Merriam.
- Wise, C. M. (1957). *Applied Phonetics*. Ea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 Wright, J. & Wright M. W. (1925). *Old English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Summary—

The English Unstressed Vowels

by Hwang Un-taek

This paper limits the number of English unstressed vowels to three, that is, [ə], [ɪ], and [ʊ]. The decision on the kinds of English unstressed vowels has been reached on the basis of phonetic value. In other words, if the value of a vowel cannot be found in any vowel with primary stress, then the former vowel is an unstressed one. [ə] does not have the same value as that of the vowel of *cut*[kʌt], [ɪ] does not have the same value as that of the vowel of *sit*[sít], and [ʊ] does not have the same value as that of the vowel of *put*[pút]. One of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s between stressed and unstressed vowels lies in the stability of phonetic value: the values of stressed vowels are stable and therefore have their own respective fixed points of articulation, while those of unstressed ones are unstable and therefore can only be shown with some spaces of articulation. [ə], [ɪ], and [ʊ] are pure unstressed vowels because they never occur in stressed syllables. This is why they are transcribed here in italics so as to be distinct from stressed vowels.

The English unstressed vowel comprises two layers of weak stress. One is the deep layer which is represented by [ə]. This [ə] has two directions for more changes in one of which it may be absorbed into the following consonants to form syllabic consonants, and in the other of which it may disappear completely between two consonants. Any of the vowel letters *a*, *e*, *i*(*y*), *o*, *u*, when unstressed, may be turned into [ə]. In this sense [ə] may be called the center of weak stress. The other layer, the surface layer, is represented by two vowels [ɪ] and [ʊ]. These two vowels differ from [ə] in that [ɪ] comes chiefly from /i/ or /e/ (or sometimes from /æ/) and [ʊ] from /u/. They are slightly connected with the corresponding stressed vowels—[ɪ] with [i] or [i:], and [ʊ] with [u] or [u:]. Therefore this surface layer is influenced by both stressed vowels and the deep layer [ə].

Aside from occurrences of [ɪ] or [ʊ] in some syllables, all vowels in unstressed syllables are reduced to [ə]. As a general rule, [ə] does not occur before other

vowels because [ʔ] regularly inserted between [ə] and the following vowel breaks off the incessant flow of sounds. [i] comes primarily from the vowels in such unstressed suffixes as *-y* (including *-ly*, *-ity*, etc.), *-ish*, *-ing* (including *-ling*, etc.), *-ic*. From the vowel [i] in these suffixes develop the similar phonetic forms [-i], [-iʃ], [iŋ], [-ik] as the basis for [i]. Any of these forms of closed syllables, when vowel letters are *i* or *e*, contains [i], whether it is final, medial, or initial. If we put aside such two-fold pronunciations as *-age* [ədʒ or idʒ], *-ive* [əv or iv], we may say that [i] occurs finally, prevocally, and before [ʃ], [ŋ], [k], [g] in closed syllables. The other unstressed vowel [u] occurs only before other vowels. As the perceptual distance between [u] and [ə] is rather short, [u] in other cases melts easily into [ə].